

전국 각 지역 농요 진수 선보인다

12일 제20회 영·호남이 함께 하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정기 현장공연 진행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회장 김봉호)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의회 등이 후원하는 제20회 영·호남이 함께 하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 정기 현장공연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금과들소리 전승·발전에 힘써 온 이수자 윤영백 씨와 회원 60여 명이 참여하여 거행되고, 오전의 농악과 난타 공연 등 식전 행사가 이어 문화교류 자매결연을 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 경남고성농요와 경북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경이들소리, 그리고 익산삼기농요가 선보일 예정으로 전국 각 지역 농요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담양와우농악, 진도복춤, 취타대,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식전 공연 이후 개회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 등 내빈들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고, 군의원과 각 사회단체장 등도 격려차 방문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기 현장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무관중 비대면으로 가을철에 개최되었으나,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원래대로 다시 6월에 열리게 되었으며, 물품고 모찌는 소리, 모심기, 김매기 소리, 장원질 소리 순으로 진행되어 힘든 농사일을 품앗이를 통해 극복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금과들소리보존회 김봉호 회장은 "5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과들소리는 호남 지역의 소중한 농경 문화유산으로 조상들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다"며, "특히 전라북도 내의 유일한 농요 무형문화유산인 만큼 애정

을 갖고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는 곡조의 분화가 다채롭고, 음계와 선법이 판소리의 우조 및 계면조와 일치하는 것이 다른 지역 농요와의 차이점인 것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예능보유자 이정호씨가 별세한 후 김봉호 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보존회원들이 그 뒤를 이어 꾸준히 보존 전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에는 제59회 전북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제60회 전국민속예술축제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여 농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 뮤지컬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서 12일~7월 3일까지 '태권, 날아올라' 진행

스포츠 태권도를 뮤지컬 공연으로 완성한 '태권, 날아올라'가 6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다. '태권, 날아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 전라북도, 무주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라이브(주)와 (주)컬처홀릭이 제작한 재단의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으로 완성되었다. 국가 태권도의 자변 확대 및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 소재를 결합한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은 재단이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태권도 소재 무대공연 콘텐츠 분야에서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를 제작 지원했다. 출연진에는 지난 2021년 미국 서바이벌 쇼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인 엄지민이 캐스팅되어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내용은 한국체육고

등학교를 배경으로 태권도 유망주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뮤지컬의 음악과 스토리에 화려하고 역동적인 태권도 퍼포먼스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국가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 등을 위해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넘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화콘텐츠에 태권도를 결합한 형태의 콘텐츠 발굴 육성에 힘써왔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막하는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 태권도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는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하며, 연령 48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포스터

익산예술의전당, 기획전시 '하늘·땅·사람'展

익산예술의전당에서 내달 17일까지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전시 '하늘·땅·사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원로, 중견 작가 9명의 최근작 50여점으로 작품감상과 함께 전시해설, 전시연계체험을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작품 속의 자연과 도시의 풍광, 사람은 언뜻

보면 사실적인 모습이지만 그 담담한 이미지 너머에는 현존에 대한 깊고 치열한 성찰이 담겨 있다. 영화나 음악, 사진 또한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각자 다른 것을 표현하고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듯이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예술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이미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며 사유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

람객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 2022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해든뮤지엄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전시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재즈·국악 프로젝트 '모던짜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4일 재즈밴드 프렐류드·경기소리꾼 전영랑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국내 최정상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경기소리꾼 '전영랑'이 함께 펼치는 '모던짜스' 공연이 개최된다.

소리꾼 전영랑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 연희단, 경기민요 정기공연 '나는 춘향이다'에서 춘향역을 맡는 등 국악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에 이어 최근 MBN '보이스퀸' 출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프렐류드는 교회안(피아노)·최진배(베이스)·리차드(색소폰)·한용원(드럼) 네 명의 멋진 뮤지션으로 결성된 한국의 최정상급 재즈 밴드이다.

'짜스 Jazz' 음악이란 1930~40년대 경성 시대에 유행하던 민요풍 대중가요 '신민요'와 해학 코믹송 '만요' 그리고 외국의 팝·스윙·상송·탱고 등을 통틀어 일컫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옛모리장단에 변박을 가해 묘한 긴장을 자아내는 '강원도 아리랑', 색소폰의 멜로디 라인인 인상적인 왈츠풍의 연주곡 '창부타령' 등을 프렐류드의 탄탄한 연주력과 전영랑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져 독특한 짜스의 향기를 흥겹게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도태 기자



한편 김제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되며, 관람권 예매는 1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다.

'KBS 국악한마당' 진안 마이돈테마공원서 18일 개최

KBS 국악한마당이 오는 18일 오후 5시 진안 마이돈테마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김용임, 방수미 명창, 소리꾼 김용우, 전주판소리합창단, 소리꾼 이윤아, 김주리 등 출연한다. 특히 김용임은 트로트와 국악이 만난 특별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 국악계 젊은 명인으로 알려진 방수미 명창, 소리꾼 김용우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장은성 기자

이날 공연은 입장권 없이 선착순 무료입장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7397)로 하면 된다. 한편 KBS 국악한마당은 올곧게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명인의 전통 음악부터 우리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인들의 음악과 꿈나무 어린이들까지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국내 최정상 국악 프로그램이다. /장은성 기자

임실필봉농악 전통 연희극, 8월까지 야간상설공연

임실필봉농악을 기반으로 기획된 전통 연희극이 야간상설공연 무대에 오른다. 임실군은 '전라북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필봉문화촌에서 야간상설공연을 진행한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준비한 춤추는 상쇠 '어화, 빗님' 공연은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명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춤추는 상쇠 '어화, 빗님'은 마을굿을 지켜야 하는 주인공 봉뿔이가 마을을 떠나면서 벌어

지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다루고 있다. 소리, 민요, 노래, 춤, 사물놀이, 농악, 연극이 어우러진 전통 연희극이다. 여기에 요즘 보기 어려운 모내기 물레질, 혼례, 상여와 같은 전통 농촌문화 창작과 타악 퍼포먼스나 1960~1970년대 유행하던 '썰단' 공연의 모습까지 만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풍물 체험, 만들기 체험, 먹거리 체험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